

이재명 “호남은 국가 보루”... AI·에너지로 호남경제 부흥

광주, AI·모빌리티·문화 등 첨단산업 집적 전남, 의과대 설립·에너지 수도 균형발전 군공항 이전은 구체성 떨어져 표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대 격전인 '호남권 대전'을 앞두고 "호남이 국가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도 등 호남 지자체가 제안한 필수 공약이 다수 반영돼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단, 일부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아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며 호남권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 광역철도 등 최대 현안이 반영됐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온 만큼 AI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는 국가 AI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컴퓨터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AI 직접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

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를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겠다"며 "창작, 공연, 영상산업 등 문화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해, 국제교류 플랫폼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I와 모빌리티,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시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대 역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 강 시장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 근무하며 81주원 규모의 지역 7대 과제와 초광역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전남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20대 과제 중 최우선 과제 상당수가 포함됐다.

30여 년 숙원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선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완성 ▲RE100 산단 조성 ▲해남에 세계 최대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이 선도한 주민참여

미래 산업의 심장



형 햇빛·바람연금 확산도 공약화했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켄텍) 지원 의지도 밝혔다. 또 여수의 주력산업을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광양제철산업의 수소 환원제철로의 기술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목포를 해상풍력과 전기선박 산업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복안도 내놴.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구체성이 떨어져 또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1호 공약인 국립 의대 설립 등 핵심과제는 대부분 반영된 데다 경선 이후 정당공약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미반영된 공약은 정당공약, 시도별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나주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4월 23일, 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현안사업보고 및 의견청취활동 ▲28일에는 상임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논의 ▲29일부터 30일에는 상임위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폐회 날인 5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방치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한형철 의원은 청년 문화 특화 구역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김강정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나주시 신재생 에너지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과면 이후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농부가 어떤 씨앗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을의 수확이 달라지듯,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더 주체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시-자치구, 청소년 예산 핑퐁에 현장 휘청... '서비스 질' 하락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분담률 협의가 수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종사자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청소년정책연대에 따르면 시와 5개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급여 등은 광주시가 100% 지원했으며 구립시설은 자치구가 부담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구청장협의회는 구립시설 예산 지원 비율을 시 50%, 자치구 5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구립시설은 시 30%·자치구 70% 지원" 구청장협의회 "시 50%·자치구 50% 예산부담" 5개월 동안 줄다리기... 종사자 이직 등 피해

반면 시는 기존대로 100% 자치구가 구립시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해 논의가 멈췄다. 최근에는 구립청소년시설에 대해 시 30%, 자치구 70% 지원안까지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예산지원 분담비율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청소년시설은 수원원·문화의 집·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복지센터·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시립시설 12개소와 구립시설 21개소 등 총 33개소가 있다.

종사자는 시립시설 140명, 구립시설 144명 등 총 284명이 있으며 급여도 시립시설은 팀원기준 평균 300만원, 구립은 270여만원으로 30여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동반자와 방과후 학습 등은 1명의 종사자가 전담하는 시설도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호봉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경력자와 신입자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은 강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임금 인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연이나 무산 없이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져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개선 하기 위해 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청장협의회와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논의를 지속해 의견차를 좁혀 청소년 지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정책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와 방과후 학습 근로인력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1년 단위 계약 이어서 시와 자치구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기자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해체... 내부 갈등 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로 주목을 받았던 '성장'과 '통합'이 내부 갈등 끝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다.

24일 광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포럼 성장과 통합은 이날 조직 구성원들에게 해체 소식을 알렸다.

포럼 측은 "조직의 탄생 과정 처음부터 가져왔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조직 내 주도권 다툼 등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가 결국 회비 소동으로 선거법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 조직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시기를 받았고, 후보님의 격려를 사게 됐다"며 "이에 과감하게 해산으로 문제의 싹을 없애고 선대위로 각자 해쳐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출범한 성장과 통합은 34개 분과에 학자와 전직 관료, 현장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몰려 매머드급 선거 지원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허민 전남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에 선임되고 문인 북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광주·전남 지역 전문가들이 포함돼 관심이 모아졌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산업지원에너지분과 부위원장)과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AI분과 부위원장), 신우진 전남대 교수(균형발전분과 공동부위원장), 홍선기 목포대 교수(지속가능분과 공동부위원장), 이윤호 순천대 교수(기후위기대응분과 수석공동부위원장)도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전문가들이 성장과 포럼에 참여하면서 이 후보가 지역발전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남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토) - 5. 11. (일) 장성 황룡강변

장성군
2025 장성군축제
장성 방문의 해

전야제 5. 9. (금)

뮤직 페스티벌 5. 10. (토)

나들이 5. 12. (월) - 5. 18. (일)